

에너지자립을 추진하는 등용마을

태양과 바람이 함께 일하는 마을공동체

등용마을의 생명평화마중물과 부안시민발전소는 2008년부터 ‘재생가능 에너지 체험학교 및 캠프’를 운영하고 있다. 햇빛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기와 태양열 조리기로 생산된 전기로 생활하며 음식을 익혀먹고, 소형 발전기를 직접 제작하는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직접 다루고 만지면서 생활하는 것이다.

주민들이 출자한 전국 최초의 시민발전소

부안군 등용마을(2011년 6월 6일)은 2003년 12월 16일, 주민들이 출자한 전국 최초의 시민발전소(생居扶安)를 설립하였다.



41kW

가

60%

30%

가

가

?

가

2008

가

가



2008

가

가

(Weatherization)'

1가

2

가

(焉敢生

心)

(Weatherization)'

가?'



등용마을 만들기 중장기 계획

가

가

가

